

15소년 표류기

Adrift in the Pacific

1장. 폭풍우와 낚선 땅

p.10~11



1859년 말 뉴질랜드의 여름 방학이었고, 열네 명의 소년은 모두 매우 들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부유한 집

아들들을 위한 뉴질랜드의 한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바다 여행을 가도록 선발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뉴질랜드 전체를 항해할 예정이었다.

그 여행은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년들은 방학을 보낼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다. 배에는 일곱 명의 선원이 있었다. 또한, 조리사와 모코라는 소년도 있었다. 그 아이는 그 배의 심부름꾼이었다. 소년들이 배를 탔을 때, 선원들 대부분은 시내로 술을 마시러 가고 없었다. 선장은 아직 거기에 없었다. 오직 모코와 선원 한 사람만이 거기에서 소년들을 맞이하기 위해 있었다. 일단 소년들이 잠자리에 들자, 그 선원도 모코에게 일을 맡기고 시내로 갔다. 그러나 모코는 너무 피곤해서 깨어 있을 수 없었다.

p.12~13

어찌 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배를 항구 벽에 묶어두었던 밧줄이 풀렸다. 아무도 그 배가 바다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모코가 맨 먼저 잠에서 깨어났고, 다른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한 크게 소리쳤다. 고든, 브리앙, 도니 판, 그리고 몇몇 아이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너무 멀리 나와서 아무도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바람은 그 배를 곧장 바다로, 즉 태평양으로 떠밀었다. 소년들은 불빛 하나가 자기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



고는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것은 증기선이었는데, 거대하고 소음이 심했다. 그 배에 탄 누구도 아주 작은 그 배를 알아차리거나 자기네 배의 엔진 소음 너머로 소년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

p.14~15

그 증기선은 소년들의 배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배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 조각을 떨어뜨렸다. 다행히, 그 작은 배는 침몰하는 대신에 똑바로 있었지만, 증기선은 그냥 지나가 버렸고..... 소년들은 거세지는 폭풍우 속으로 항해해 나갔다. 물론, 소년들의 가족은 그들을 찾았지만, 배의 표지판 조각을 발견하고는 그 배가 침몰했다고 짐작했다. 슬픔에 잠긴 그들은 수색을 포기했다.



몇 주 후, 소년들은 그들이 또 다른 폭풍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배가 엄청난 파도를 뚫고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하루하

루는 인내의 시험이었다. 날씨가 이렇게 험악할 때는 배를 꼭 붙잡고 돛들이 찢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p.16~17

갑판에는 고든, 브리앙, 도니판, 그리고 모코가 서서 타류를 꼭 붙잡고 배를 조종하기 위해 모두 애쓰고 있었다. 모코의 피부는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구름들처럼 검은 반면, 도니판은 두려움으로 창백해 보였다. 이들 넷은 모두 니이가 열두 살에서 열네 살 사이였다. 갑판 아래 선실들에는 이들보다 어린 열한 명의 소년과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갑자기 모코가 외쳤다. “육지대! 육지가 보여!” “정말이야?” 도니판이 이른 아침의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는 자기가 맞길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든 의심했다. 틀림없이 그는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나머지 소년들 중 몇몇은 그를 ‘도니판 경’이라고 불렀다. “응, 확실해.” 모코가 대답했다. “돛대의 오른쪽을 봐.” “육지야!” 브리앙이 소리쳤다. “정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들 모두는 수평선 위에 있는 길쭉하고 나지막한 좁은 육지를 보았다.

p.18~19

브리앙은 타고난 지도자이자 머리 회전이 빠른 아이였다. 그는 만약 배가 암초에 부딪힌다면 모두가 갑판 위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갑판 아래의 선실들



로 이어지는 문을 열고 소리쳤다. “얘들아, 모두 갑판 위로 올라와.” 곧바로 개가 뛰쳐나왔고, 열한 명의 소년들이 전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그들 주위의 피도를 보았을 때 가장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 배는 암초에 좌초했다. 파도가 배 주위를 소용돌이 치면서 배를 다시 완전히 들어 올렸지만, 파도는 배를 좀 더 멀리 실어날라 얕은 바다의 어느 모래사장 위에 떨어뜨렸다. 배는 육지에 닿았으나, 대체 어떤 종류의 육지였을까? 그것은 그들이 마을이나 시내 같은 어떤 일종의 정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륙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섬이라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배 없이는 떠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었다.

p.20~21



소년들은 서둘러 배에서 빠져나왔고, 배를 바다 밖으로 내놓기 위해 그것을 끌고 물을 헤치며 해안으로 걸었다.

배는 박살나고 산산조각 나 그곳에서 멀리 항해할 방법이 없었다. 해안에는 인적이 없었다. “우선, 우리 음식과 지낼 곳이 필요해.” 브리앙이 말했다. “그런 후에, 다음에 우리가 뭘 할지 생각해낼 수 있어.” 브리앙과 고든은 해변을 걸어 올라가 숲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절벽을 발견했다. 그들은 개울에 다다를 때까지 절벽을 따라갔다. 개울 반대편에는 습지가 있었다. 거기에는 비바람을 피할 장소가 없는 것이 확실했다. 실망한 소년들은 난파선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야만 할 것이었다. 다행히도, 침구류, 의류, 그리고 조리기구들이 여전히 배에 있었다. 거기에는 심지어 식량도 있어서, 모코는 그것으로 훌륭한 식사를 만들었다.

p.22~23

모코는 모두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곤 했던 실용적인 재주를 많이 지닌 대단히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소년이었다. 브리앙의 남동생 자크를 제외하고 모두가 놀라울 만큼 쾌활해 보였는데, 자크는 매우 우울해 보였다. 이튿날 아침, 소년들은 그들의 식량을 살펴보았다. 브리앙과 고든은 그들이 두 달은 버틸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얼마 동안이나 살아남아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다른 식량 공급원들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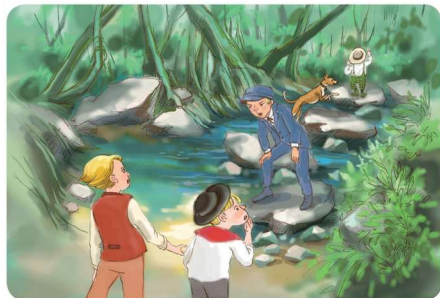


그들은 바닷새들의 알을 모았고, 배에 있던 낚시줄

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았다. 그들은 또 바다 근처의 바위에서 조개류들도 찾았다. 배에는 식량뿐만 아니라 밧줄, 돛, 지도, 성냥 같은 다른 물자들도 있었다. 따뜻하고 방수가 되는 옷도 많았다. 그리고 총기들도 있었지만, 브리앙은 그것들을 사용할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랐다! 그들은 숲에서 거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변의 날씨는 너무 험악했고, 겨울이 오면 그들은 그곳에서 지낼 수가 없을 것이었다.

p.24~25

브리앙, 도니판, 서비스, 그리고 월콕스는 개, 판을 함께 데리고 답사를 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판단력이 아주 뛰어난 고든은 나머지 소년들을 돌보기 위해 뒤에 남았다. 서비스는 약간 게을렀지만 대체로 상냥하고 함께 어울리기가 쉬운 마음씨 착한 소년이었다. 네 명의 답사자는 해변을 따라 출발했다. 그들



은 꽤 힘들게 절벽을 올라가 반대편으로 재빨리 기어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숲을 더 발견했다. 그 소년들은 걷고 또 걸었다. 숲은 끝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숲 한복판에서 그들은 우연히 강을 만났고,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이거 봐.” 서비스가 바위 몇 개를 뺀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누군가가 이 바위들로 다리 같은 걸 만들어 놔.” “그 바위들은 폭풍우에 의해 거기로 휩쓸려 왔을 수도 있어.” 브리앙이 말했다. “그게 근처에 사람들이 있다고 증명하진 않아.”

p.26~27

하지만 소년들은 그날 밤에 숲에서 야영하기 위해 자리를 잡을 때 매우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만약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모닥불을 피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누구의 주의도 끌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야외에서 오직 차가운 음식과 함께 몹시 추운 밤을 보낸다는 의미였다. 이튿날 아침, 소년들은 일찍 일어나 숲을 답사하기 위해 약간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들이 나뭇잎과 나무로 만든 오두막 가까이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이걸 근처에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야.” 도니판이 속삭였다. “이 오두막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남아 보여.” 브리앙이 말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서비스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그들이 착한지 나쁜지도 모르잖아.” “그들이 식인종이 아니라면 좋겠어.” 월콕스가 속삭였다.

2장. 발견한 것들과 비밀

p.30~31

소년들은 마침내 숲의 끝에 다다랐고, 그 너머에 모래사장 and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를 발견했다. “이건 섬이야.” 브리앙은 실망하여 꽤 짜증이 나서 소리쳤다.



“봐, 여긴 바다고 반대편에는 해변의 흔적이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많은 것에 대해 브리앙과 의견이 전혀 다른 도니판이 말했다. “내 생각엔 우리가 좀 더 멀리 탐사해봐야 해.” 브리앙은 비록 도니판과 그의 따지기 좋아하는 태도에 점점 화가 나고 있었지만, 그는 동의했다. 소년들은 야생 동물이나 사람들을 대비하여 그들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다시 출발했다.

p.32~33

마침내 그들은 바다 너머에 모래사장을 발견했다. 그들은 조그만 언덕을 올라갔고, 도니판이 맨 먼저 꼭대기에 도착했다. “이건 절대 바다가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건



거대한 호수인데, 그 애긴 우리가 섬에 있는 게 아니란 뜻이야, 브리앙.” 브리앙은 그것에 대해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고든이 그에게 도니판과 다투

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당장은 조용히 있었다. 그들이 숲 근처의 호숫가로 돌아왔을 때, 판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짚어대면서 나무들과 소년들 사이를 왔다 갔다 뛰어 다니며 호숫가에 있는 한 무리의 나무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소년들이 그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몇 개의 글자와 연도가 새겨져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FB

1807

p.34~35

소년들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판은 다시 급히 가버리더니 사라졌다. 그들은 판이 다시 짚는 소리를 듣고 그를 쫓아 절벽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관목 쪽으로 갔다. 관목들 뒤편에는 가로질러 자란 나뭇가지들에 의해 감춰진 동굴의 입구가 있었다. “조심해.” 도니판이 말했다. “그 안에 뭔가가, 아니면 누군가가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그 공기가 호흡하기에 괜찮은지도 확인해야 해.” 브리앙이 경고했다.



소년들은 주의하며 걷고 조심스레 숨을 쉬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은 말라 있었

고 모래가 덮여 있었으며, 공기는 숨을 쉬기에 좋았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철제 컵과 주전자가 놓인 탁자가 하나 있었다. 심지어 거기에는 비록 오래전에 시간을 알리는 것을 멈추긴 했지만, 시계도 하나 벽에 있었다.

p.36~37

소년들이 보기에 언젠가 어떤 사람이 여기 살았었다는 것은 분명했는데, 얼마나 오래전인지는 알기가 어려웠다. 밖에서는 판이 여전히 짚고 있었다. 소년

들이 그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더니, 섬뜩하게도 강둑에 해골이 하나 놓여 있었다! 소년들은 그 광경에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조난 당했었고, 그 동굴 안에서 살았던 것이 틀림없지만, 그의 해골이 아직 여기 있다는 사실은 그가 결코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건 그들도 결코 섬을 떠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자 브리앙은 오싷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남자가 그 동굴 안에서 살 수 있었다면, 그들도 더 좋은 계획을 생각해낼 때까지 그 동굴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동굴은 건조했고, 모든 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컸다.



p.38~39

그들이 또 한 번의 수색을 하기 위해 내부로 돌아갔을 때 많은 글자가 있는 책을 발견했다. 이름인 프랑수아 보두앙을 제외하고는 그 글자들을 읽기 불가능했다. FB, 바로 나무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머리글자였다! “그 해골은 프랑수아 보두앙이 틀림없어.” 브리앙이 말했다. 도니판이 갑자기 외쳤다. “지도를 발견했어! 여기 책의 페이지 사이에 감춰져 있었어!”



“프랑수아가 그걸 그런 게 틀림없어.” 브리앙은 더 가까이 살펴보기 위해 도니판의 어깨너머로 몸을 기울이면서 말했다. 그것은 그곳이 실제로 섬이란 것을 증명하는 전체 지역의 지도였다. “그러니까 네가 옳았어, 브리앙.” 도니판이 우울하게 말했다. “이곳은 섬이야, 그러니까 우린 배 없는 여길 떠날 수 없어.”

p.40~41

소년들은 프랑수아를 위해 무덤을 파고, 그곳에서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고는, 고든에게 그 동굴에 대해서 말해 주려고 서둘러 돌아갔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그 지도를 이용해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애썼음에도 길을 잃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알 방법도 없이 숲 속에서 또 하룻밤을 마주했다. 그때, 밤의 고요함 속에서 갑작스러운 탕 하는 소리가 나고 빛이 번쩍했다. 고든이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배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었다! 소년들은 다행스럽게도 신호탄 방향으로 서둘러 갔고 한 시간 안에 배로 돌아왔다.

모두 그 동굴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고, 거기에 프랑스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프랑스 동



굴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모든 것을 동굴로 운반하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고, 그것을 타고 강을 따라 해변에서 동굴로 갔다. 여전히 말이 없고 우울해 보이는 브리앙의 동생 자크를 제외하고는 그곳에 도착하자 모두 아주 좋아했다. 자크는 항상 유쾌하고 자신 만만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는 특이한 일이었다.

p.42~43

“너 뭔가를 감추고 있구나.” 브리앙이 자크에게 속삭였다. “아니면, 어디 아프니?” 자크는 그냥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기를 거부했다. 소년들은 배에서 모든 침구와 탁자를 동굴 안으로 가져왔고, 따라서 그들은 동굴 안에서 기분 좋고 아늑했다. 모코는 훌륭한 식사를 만들었



며, 그날 밤 동굴 안에는 파티 분위기가 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들은 프랑스 동굴에서의 생활

에 적응했다. 도니판은 언제나 말다툼을 일으켰지만, 고든이 가까스로 모든 것을 진정시켰다. 그는 배에서 가져온 책들로 수업을 했고, 모두 앉아서 들었다. 소년들은 배에서 가져온 연장들로 동굴을 디크게 만들었다. 다행히 바위는 그들이 조금씩 쪼아낼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서 그들은 곧 바위를 파냈다. 그리고 그들은 밖을 내다보고 신선한 공기가 동굴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좁다란 창문을 두 개 만들었다. 밖의 홍수와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은 모두 안전했다.

p.44~45

이제 소년들은 생활할 더 큰 동굴이 생기자 섬의 주요 부분들에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우리 이 섬을 체어맨 섬이라고 부르자.” 고든이 제안했다. “우리 학교를 운영하시는 이사장님 이름을 따서 말이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항해를 준비하셨으니까 그분 이름을 따서 섬의 이름을 짓는 거지.” 그들은 배가 난파되었던 해변을 스쿠너 만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스쿠너는 그들이 타고 항해했던 배의 종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도자가 필요해.” 브리앙이 말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건 네가 해야 해, 고든.” 대



부분의 아이가 브리앙의 말에 동의해서 고든이 체어맨 섬의 지도자가 되었다.

겨울이 오자, 날씨는 몹시 추워졌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아무도 동굴을 떠날 수 없었다. 고든은 모두를 빨래하는 것과 책들에서 배우는 것으로 계속 바쁘게 만들었다. 눈이 녹자, 소년들은 밖으로 나가 식량을 사냥했다. 섬의 여기저기에는 동물들이 많았고, 도니판은 특히 총으로 그것들을 쏘는 것을 즐겼다.

p.46~47



브리앙은 그들이 섬을 떠날 수 있도록 배를 만드는 일에 대해 말했지만, 고든은 그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고 모두를 계속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 더

많은 계획을 세웠다. 고든은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도니판은 그와 브리앙을 질투했기 때문에 그들 두 사람에게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심지어 게임을 하다가 브리앙과 싸우기 시작했다. 고든이 와서 그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했다. “고든, 왜 네가 지도자여야 하는 건데?” 도니판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너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의 친구들인 월콕스와 웹, 그리고 그의 사촌인 크로스가 도니판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도니판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른 소년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며 돌아다녔다. 크로스는 언제나 도니판을 존경했고, 그의 사촌이 말하는 것은 모두 했다. 웹과 월콕스는 겨우 열두 살이었고, 특별히 똑똑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서로 다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이들은 도니판이 그의 주변에 모으는 종류의 소년들, 즉 그가 말하는 것을 의문 없이 행할 소년들이었다. 나머지 소년들 일부는 그들의 말을 들었고, 또 일부는 도니판과 그의 친구들을 무시했다.

p.48~49

브리앙은 여전히 그의 동생 자크가 걱정스러웠는데, 그 아이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있

었다. 마침내, 자크는 브리앙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했다. “형은 나를 용서할지도 몰라.” 그가 말했



다.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런데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브리앙이 물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크는 울기 시작했다.

이제 소년들은 몇몇 동물과 새들을 잡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위해 농장 울타리를 만들었다. 모코는 새 알과 라마같은 동물인 비쿠냐의 젖으로 몇몇 훌륭한 음식들을 요리했다. 심지어 그는 단풍나무 수액으로 설탕 시럽을 만들어내기도 해서 모두 잘 먹었다! “나는 섬 동쪽에 가서 살피 볼거야.” 브리앙이 말했다. “그러면, 그쪽에 어떤 배가 지나가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는 모코와 자크를 데리고 갔다. 그들은 더 큰 난파선에서 가져온 작은 배를 타고 떠났다.

p.50~51

강을 따라 오랫동안 여행한 후에 그들은 동쪽 해안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몇 개의 바위만 있는 모래사장만 있었지만, 하루종일 머물면서 지켜보아도 그쪽으로는 배가 한 척도 지나가지 않았다. 브리앙은 마치 그 장소가 그를 속인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곳을 사기 만이라고 불렀다. 그는 망원경을 통해 살펴보다가 수평선 위에 있는 이상한 것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그것은 구름처럼 보였으나 하늘은 맑았다. 비록 모코도 그것이 보인다고 말했지만, 브리앙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얼마 후, 브리앙과 자크는 그들이 보트를 타고 동굴로 돌아갈 수 있게



조류가 바뀌기를 기다리도록 모코를 남겨둔 채, 그들이 멀리 산책하러 나갔다.

모코는 브리앙과 자크가 자크의 비밀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엿들지 않을 수 없었다. “네가 그랬구나!” 브리앙은 숨이 턱 막혔고, 목소리는 움짤했다. “미안해.” 자크가 말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 브리앙이 말했다.

3장. 원치 않은 방문객들

p.54~55

브리앙, 자크, 그리고 모코가 동굴로 돌아왔을 때, 생활은 보통 때처럼 계속됐다. 도니판은 계속 모든 아이와 다투었고, 모든 일에 대해 불평했다. 이제 고든이 섬의 지도자가 된 지 꼬박 1년이 되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가 됐어.” 자기가 새 지도자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도니판이 말했다. 하지만 대신에 브리앙이 선출되었고, 또 한 번의 겨울 동안 도니판은 점점 더 화가 났다.



다시 여름이 왔을 때, 도니판은 더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난 네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싫증이 나.” 그는 브리앙에게 쏘아붙이고 크로스, 월콕스, 그리고 웹을 데리고 사기 만으로 떠났다. “우린 다른 애들은 필요 없어.” 그가 말했다. “우린 우리 힘으로 여기서 완벽하게 잘 살 수 있어.”

p.56~57

사기 만에서의 첫째 날 밤은 요란한 천둥소리와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한 심한 폭풍우가 쳤다. 도니판과 친구들이 해변 가장자리에 있는 숲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월콕스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저



게 뭐지?” 그는 해변 위에 있는 크고 어두운 형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것은 배처럼 보였다. 소년들은 살펴보러 재빨리 달려갔고, 그게 배라는 것을 알았다.

모래 위에 몸체 두 개가 배 바로 옆에 누워 있었다. 소년들은 그곳에 머물며 돕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폭풍우가 아주 사나워서 너무 무서웠다. 그들은 황급히 나무들이 있는 피난처로 돌아왔다. 밤새, 그들은 멀리서 나는 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번개가 멈추자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p.58~59



아침이 되어 날이 밝자, 소년들은 배를 살펴보러 갔다. 하지만 두 몸체는 사라졌고, 그들이 야생 동물들에 의해 끌려간 흔적도 없었다. “조류가 그들을 휩쓸어간 게 분명해.” 도니판이 말했다.

배는 한쪽 측면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지만, 뒤쪽에서 그들은 아직 ‘세번’이라는 이름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거기에는 ‘샌프란시스코’라는 글자도 쓰여 있었는데, 그 배가 출항했던 항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건 미국에서 온 거야.” 도니판이 말했다. “난 그 얘기가 우리가 미국 해안 가까이에 있다는 뜻인지 궁금하네.”

p.60~61

다시 프랑스 동굴로 돌아가 보면, 모두가 슬펐다. 그들은 도니판과 그의 친구들이 아주 떠나버리지 않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생각할 다른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배가 그 섬을 지나갈 경우를 대비한 신호의 필요성 같은 것이었다. “연을 하나 만들자.” 브리앙이 제안했다. “그게 하늘 높이 올라갈 거고, 만약 어떤 배들이 지나간다면 그걸 보게 될 거야.” 더 어린 소

년들은 브리앙의 생각에 대해 아주 흥미로워했으며 거대한 연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그것을 배에서 가져온 무거운 금속 원치에 붙들어 댔다. 그들은 연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원치를 땅



에 고정했다. 소년들이 막 연을 띄울 준비가 되었을 때, 판은 다시 젖으면서 숲을 향해 달려갔다. “그가 이번엔 뭘 발견한 거지?” 모든 소년이 그 개를 쫓아가면서, 고든이 물었다. 이번에는 판이 그들을 나무 밑에 누워 있는 한 여인에게로 이끌었는데, 그녀는 의식이 없었지만 살아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동굴로 데려와 브랜디로 입술을 적셔주었다.

p.62~63



40대로 보였던 그 여인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내 이름은 케이트란다.” 그녀가 말했다. “내 주인과 그 부인께서 칠레로 향해하는 ‘세번’이라고 불리는 배에 나를 데리고 승선했을 때 나는 미국에서 하녀였단다.” 케이트는 소년들에게 ‘세번’호의 선원들에 대해 모두 말해 주었다. 그들은 배와 배 위의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선장인 그녀의 주인과 그의 부인을 살해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월스턴이라고 불렸고, 다른 선원도 대부분 거의 나쁜 사람들이었다. 비록 그들 가운데 한 명인 포브스란 사람은 나머지 다른 자들보다는 덜 잔인했지만 그들은 월스턴이 하라는 대로 했다. 포브스는 그들을 설득하여 케이트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 또한, 그 사내들은 선주인 에반스의 목숨도 살려주었는데, 그는 선장 다음으로 배의 지휘권

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들은 항해하려면 그가 필요했다.

p.64~65

케이트는 소년들에게 어떻게 배에 불이 붙었는지와 그 불길을 피하기 위해 배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죽은 한 사내에 대해 말해 주었다. 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불길이 너무 사나워 배는 완전히 타서 침몰했다. 다행히, 그들이 뛰어내릴 수 있는 구멍정이 하나 있었다. 이것이 그 선원들과 케이트를 태우고 체어맨 섬의 해변으로 휩쓸려왔던 배였다. 그 구멍정이 해변에 닿자 케이트는 해변으로 내동댕이쳐졌고, 얼마 후에 겨우 깨어나 눈에 띄지 않고 달아났다. 그 사내들은 아마도 그녀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할 거였다.



다. 그 사내들은 아마도 그녀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할 거였다.

브리앙은 그 섬에 위험한 사내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공포에 휩싸였다. “우린 도니판과 나머지 애들을 찾아야 해.” 그가 소리쳤다. “우린 그 애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동굴로 다시 데려올 거야.” 그와 모코는 그들을 찾으러 길을 나섰는데, 배를 타고 강을 따라 깊고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다.

p.66~67

도니판과 그의 친구들은 숲에서 꺼져 가는 불 옆에서 야영하고 있었다. 브리앙과 모코가 도착한 그 순간 재규어 한 마리가 도니판에게 달려들었다. 월콕스가 재규어를 쏘기 위해 총을 잡았지만, 브리앙이 소리쳤다. “쏘지 마!” 그는 칼을 휘둘러 재규어를 베었고, 그 과정에서 브리앙은 어깨에 상처를 입



었다. 재규어가 절뚝거리며 멀어져 가면서, 소년들에게 달아날 기회를 주었다. “서둘러!” 브리앙이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가자!”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도니판이 말했다.

p.68~69

브리앙은 그들을 배로 다시 데려가면서 그들에게 위험한 사내들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게 내가 너한테 총을 쏘지 말라고 했던 이유야, 월콕스.” 그가 설명했다. “그들이 총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고 이 섬에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친구가 된 브리앙과 도니판은 배를 타고 동굴로 돌아왔고, 15명의 소년이 모두 다시 모였다. 모뉴들 발견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했다. 브리앙은 위험한 사내들이 그들을 발견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이 동굴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브리앙에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이 연을 공중에 높이 보낼 수 있어.” 그가 말했다. “한 아이가 그것과 함께 올라갈 수 있어. 그 애가 섬 전체를 볼 수 있을 거고, 그 사내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을 거야.” 나머지 소년들은 그 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들은 어떻게 한 소년의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연이 여전히 날게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면서 며칠을 보냈다. 그들은 한 소년이 그 안에 설 수 있도록 연 밑에 매달 바구니를 하나 만들었다.

p.70~71

“누가 그걸 타고 올라가지?” 고든이 물었다. 자크가 자원했지만, 도니판과 다른 소년들 중 몇몇도 자원했다. “꼭 내가 해야 해.” 자크가 고집했다. “왜냐하면,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만회하고 싶으니까.” 마침내, 그는 오클랜드 항구에서 밧줄을 풀어버린 사람이 그였다고 고백했다. 배가 먼 곳으로 흘러왔던 일

은 그의 잘못이었다. “장난을 치려고 했던 거였어.”
그가 작고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도니판이 말했

다. “그건 실수였고,
우린 널 용서할 거
야.” 이제는 자크
가 왜 그렇게
지금껏 매우 슬
퍼했는지 모두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는 그가 바구니에 타고 올라
가 섬을 살펴보는 일에 동의했다. 하지만 브리앙은
자기 동생이 그토록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
았다. 그래서, 자크가 바구니에 막 발을 들여놓으려
는 때에 브리앙이 먼저 올라타 연을 띄워 올리라고
명령했다!

4장. 충격전 그리고 작별 인사

p.74~75

브리앙과 연은 밤하늘로 높이높이 올라갔고, 곧 어
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은 스스로 멀리 날아갈 수 없
게 밧줄에 묶여 있었다. 브리앙은 그 밧줄이 팽팽히
당겨지고 산들바람을 맞으며 섬 상공을 맴돌 때가
지 10분 동안 올라갔다. 그는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이 아주 잘 보였다. 그가 맨 처음 본 것은 동쪽에 있
는 불빛이었지만, 그것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섬에 있는 것일 수가 없었다.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건 화산인
가?” 그는 궁금
했다. “어쩌면
저쪽에 육지가
있을 거야!” 그
는 사기 만에서
보았던 하얀 지
점을 기억하고
는 어쩌면 거기
에 빙하로 덮인
섬이 있을지도

p.76~77

그때, 그는 또 다른 불을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웠다. 그것은 브리앙에게 그 사내들이 아직
도 체이맨 섬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는 니미
지 아이들에게 자기와 연을 다시 땅으로 끌어 내리
라고 알리기 위해 밧줄을 당겼다. 그런데, 연이 아래
로 내려지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었다. 그
것은 밧줄을 끊고 브리앙을 바구니에서 내쳐버릴 정
도로 강했다! 그가 공중에서 떨어지자, 모두 소리치
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다행히도 그는 호수에 떨어
어져 다치지 않고 호숫가로 헤엄쳐 나왔다. 연은 그
것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해 주는 브리앙의 무게가
없어지자, 거대한 새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폭풍우 치던 어느 날
밤, 동굴 안에 있던
소년들과 케이트는
밖에서 도움을 청하
는 목소리를 들었다.
“에반스 목소리 같
아.” 케이트가 말했



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 그가 우리를 봐도 안전해.”
그래서 소년들은 에반스가 동굴로 들어오는 것을 허
락했다. 그는 케이트가 결국 살아 있는 것을 발견하
고 몹시 좋아했다. “세번’호의 구명정은 수리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자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연장이 없어서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거야.” “근
데, 우리 연장이 있어요.” 도니판이 말했다. “우리가
그걸 수리할 수 있어요!”

p.78~79

에반스는 그들에게 그 위험한 사내들이 섬에 떨어진
연을 발견했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이 섬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곧이어
이 동굴을 발견했었다. 그들은 동굴을 빼앗고, 그 안
에 있는 모든 것들을 훔쳐가기 위해 공격을 계획하
고 있는 중이었다. 에반스는 그들에게 가까운 곳에
육지가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브리앙의
말이 맞았다! “이 섬은 남아메리카 대륙 해안 인근에
있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실제 이름은 하노버 섬
이야.” 그래서 소년들은 그 사내들이 그들을 제지하

는 일 없이 그들을 구명정에 도달하게 한다면, 그들의 연장으로 구명정을 수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들은 항해에 나설 것이고,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그들은 그 사내들을 처리해야 했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었다.



p.80~81



어느 날 저녁, 두 사내가 동굴로 왔을 때 악당들의 공격이 이상할 만큼 조용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그

들은 난파선의 선원들인 척하며 그들의 이름이 포브스와 록이라고 했다. “우릴 도와주겠니?” 포브스가 소리쳤다. “우리에게 음식과 거처를 좀 마련해주면서 말아야.” 소년들은 그 사내들의 이야기를 믿는 척하며 그들을 동굴로 들어오게 했다. 그들은 그 사내들을 붙잡고 싶었다.

일단, 그 사내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자, 소년들은 그들을 창고로 밀어 넣고 거기에 포로로 잡아두었다. 그 사내들은 달아나려 했으나, 에반스가 포브스를 붙잡았다. 불행히도, 록은 탈출해 도망쳐서 다른 사내들에게로 돌아갔다.



p.82~83



이튿날, 다른 사내들의 도착을 알리는 총소리가 났다. 나이가 더 있는 소년들은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고,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다. 많은 총싸움과 칼싸움이 있었고, 가여운 도니판은 칼에 찔리고 말

았다. 그는 마치 죽을 것처럼 보였다. “그를 동굴로 데려가.” 고든이 소리쳤지만, 사내들 가운데 몇몇은 벌써 동굴로 들어간 뒤였다. 그 위험한 사내들의 두머리인 월스턴이 자크를 움켜잡았다. 그는 자크를 동굴 근처의 강에 정박시켜두었던 소년들의 배에 태워 내려가려고 했다.

p.84~85

포브스가 재빨리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월스턴을 공격했지만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다. 모든 것



이 소년들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모코가 동굴 안 창고에 숨어 있었고, 그 사내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제, 그는 총을 가지고 창고에서 나왔다. 그는 동굴의 창문들을 통해 총을 여러 발 쏘았다.

사내들 몇몇은 죽임을 당했고, 다른 사내들은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숲 속으로 탈출했으나, 거기에서 부상 때문에 죽었다. 소년들은 판이 그들을 시체들 있는 곳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다. 소년들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도니판은 심각하게 아팠다. 케이트는 나뭇잎들로 그의 상처를 치료했고, 통증과 열이 있는 며칠간 그를 밤낮으로 보살폈다.

p.86~87



한편, 소년들은 연장, 무기, 그리고 식량을 사기만으로 옮겼다. 그들은 '세번'호의 구명정

을 수리할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수리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배가 준비되었다.

케이트의 세심한 간호 덕분에 도니판은 건강이 점점 나아졌으며, 얼마 후에는 다른 아이들과 합류하기 위해 사기만으로 찾아올 만큼 몸이 좋아졌다. 그 섬에서 거의 2년을 보낸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시도를 할 때가 되었다! 떠나기 전, 소년들은 프랑수아 보두앙의 무덤 곁에 포브스의 무덤을 팠다. 그들은 그 무덤들 옆에서 기도를 드렸고, 잠시 동안 이 용감한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했다.

p.88~89

2월 5일, 소년들은 케이트와 에반스를 함께 데리고 구명정에 올랐다. 그들이 출발할 때는 심지어 판도 자랑스럽게 뱃머리에서 있었다. 바다에서 며칠을 보낸 후, 증기선 한 척이 그



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맨 처음 항해를 시작했던 뉴질랜드를 향해 데려갔다. 1862년 2월 25일, 그들은 마침내 오클랜드로 돌아왔다. 그들이 살아 있는 모습을 볼 희망을 잃었던 소년들의 가족들은 그들을 보고는 매우 기뻐했다. "우리가 떠난 지 2년이 넘었네." 브리안이 웃었다. "우린 멋진 방학을 보냈어!"